

2023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3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합격자 발표일	2023. 1. 2.(월)	제출일	2023. 2. 8.(수)

작성자	부서명	성명	학교 전화번호	전화번호(HP)
	교육연구부	***	02-2043-6021	
확인자 (학교장)	성명		전화번호	
	***		02-2043-6021	

보인고등학교

2023학년도 보인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분석 결과

1.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표 4> 고등학교 입학전형 준비를 위한 별도의 선행학습(사교육) 필요성

단위 : 명,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신 성적	14 (2.66)	60 (11.34)	109 (20.60)	309 (58.41)	37 (6.99)	529 (100.00)
자기소개서	177 (33.46)	207 (39.13)	86 (16.26)	46 (8.70)	13 (2.45)	529 (100.00)
면접	164 (31.00)	165 (31.19)	108 (20.42)	81 (15.31)	11 (2.08)	529 (100.00)

- 응답 학생 중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기소개서는 11.1%, 면접은 17.3%에 불과한 반면, 내신 성적의 경우 65.3%에 달함
- 입학 전형 요소인 ‘자기소개서 및 면접’의 경우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낮은 반면, 입학 전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표 5> 고등학교 입학전형 준비를 위한 별도의 선행학습(사교육) 참여 기간

단위 : 명, (%)

항 목	받지 않음	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내신 성적	24 (4.54)	48 (9.07)	76 (14.37)	81 (15.31)	300 (56.71)	529 (100.00)
자기소개서	401 (75.80)	108 (20.42)	16 (3.02)	4 (0.76)	0 (0.00)	529 (100.00)
면접	405 (76.56)	116 (21.93)	7 (1.32)	0 (0.00)	1 (0.19)	529 (100.00)

- 입학 전형 요소인 ‘자기소개서 및 면접’의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입학 전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내신 성적’의 경우 95% 이상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고등학교 입학전형 준비를 위한 별도의 선행학습(사교육) 비용

단위 : 명, (%)

항 목	지출하지 않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내신 성적	31 (5.86)	41 (7.75)	139 (26.28)	192 (36.29)	126 (23.82)	529 (100.00)
자기소개서	434 (82.04)	78 (14.74)	13 (2.46)	4 (0.76)	0 (0.00)	529 (100.00)
면접	430 (81.29)	83 (15.69)	12 (2.26)	4 (0.76)	0 (0.00)	529 (100.00)

- 입학 전형 요소인 '자기소개서 및 면접'의 경우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도 대부분 30만원 미만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함
- 입학 전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내신 성적'의 경우 95% 이상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의 학생들이 50만원 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함

<표 7>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선행학습(사교육) 실태

단위 : 명, (%)

구 분	지출하지 않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받지 않음	19 (79.17)	1 (4.17)	1 (4.17)	3 (12.49)	0 (0.00)	24 (100.00)
2개월 미만	4 (8.33)	14 (29.17)	19 (39.58)	9 (18.75)	2 (4.17)	48 (100.00)
6개월 미만	4 (5.26)	10 (13.16)	40 (52.63)	17 (22.37)	5 (6.58)	76 (100.00)
1년 미만	2 (2.47)	6 (7.41)	36 (44.44)	27 (33.33)	10 (12.35)	81 (100.00)
1년 이상	2 (0.68)	10 (3.33)	43 (14.33)	136 (45.33)	109 (36.33)	300 (100.00)

* 응답자가 선행학습(사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선행학습(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의 오류로 추정됨.

- 응답자의 72% 이상이 입학 전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내신 성적을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5% 미만으로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대다수는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임

<표 8>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사교육) 실태

단위 : 명, (%)

구 분	지출하지 않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받지 않음	395 (98.50)	3 (0.75)	1 (0.25)	2 (0.50)	0 (0.00)	401 (100.00)
2개월 미만	32 (29.63)	66 (61.11)	9 (8.33)	1 (0.93)	0 (0.00)	108 (100.00)
6개월 미만	4 (25.00)	9 (56.25)	3 (18.75)	0 (0.00)	0 (0.00)	16 (100.00)
1년 미만	3 (75.00)	0 (0.00)	0 (0.00)	1 (25.00)	0 (0.00)	4 (100.00)
1년 이상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0)

* 응답자가 선행학습(사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선행학습(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의 오류로 추정됨.

- 응답자의 98.5%가 입학 전형 요소인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기소개서의 사교육 유발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표8>의 응답 결과는 응답자의 25%가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는 <표5>의 내용과 크게 상충되는 것으로, 설문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9> 면접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사교육) 실태

단위 : 명, (%)

구 분	지출하지 않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받지 않음	398 (98.27)	6 (1.48)	0 (0.00)	1 (0.25)	0 (0.00)	405 (100.00)
2개월 미만	30 (25.86)	74 (63.79)	10 (8.62)	2 (1.73)	0 (0.00)	116 (100.00)
6개월 미만	2 (28.57)	3 (42.86)	2 (28.57)	0 (0.00)	0 (0.00)	7 (100.00)
1년 미만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0)
1년 이상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 응답자가 선행학습(사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선행학습(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의 오류로 추정됨.

- 응답자의 98.2%가 입학 전형 요소인 면접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면접 준비의 사교육 유발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표9>의 응답 결과는 응답자의 24%가 면접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는 <표5>의 내용과 크게 상충되는 것으로, 설문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10> 선행학습(사교육) 의존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항 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자기소개서	4 (11.11)	32 (88.89)	36 (100.00)
면접	2 (5.56)	34 (94.44)	36 (100.00)

- 면접 위원 대상 조사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의 사교육 의존 정도는 11%, 면접 준비에 대한 사교육 의존 정도는 5% 수준으로 학생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 ‘질문을 예측하여 준비한 경우, 문항과 다르게 암기해온 내용을 기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면접 과정에서 사교육에 의존적인 경우가 파악 가능함을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의존 정도를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표 11> 금지 사항 질문 여부(면접)

단위 : 명, (%)

항 목	학생			입학전형위원		
	그렇다	아니다	전체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각종 대회 등	4 (0.76)	525 (99.24)	529 (100.00)	0 (0.00)	36 (100.00)	36 (100.00)
부모 지위	0 (0.00)	529 (100.00)	529 (100.00)	0 (0.00)	36 (100.00)	36 (100.00)
교과지식	10 (1.89)	519 (98.11)	529 (100.00)	0 (0.00)	36 (100.00)	36 (100.00)

- 금지 사항에 대한 질문 여부에 대해 2% 미만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으나, 학생들의 개방형 응답 기술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입학전형영향평가의 ‘교과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응답한 경우 및 본인에게 제시된 면접 질문을 잘못 기억하여 응답한 경우였음
- 예를 들어 ‘역사학자를 희망하는 후배에게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 교사의 자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과 지식을 묻는다고 응답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음

<표 12> 개인 자료 사전 요청 및 식별 요소 노출 여부

단위 : 명,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개인 자료 사전 요청	25 (4.73)	504 (95.27)	529 (100.00)
개인 식별 요소 노출	3 (8.33)	33 (91.67)	36 (100.00)

- 응답자의 4.7%가 개인 자료를 사전 요청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개방형 응답 확인 결과 대부분이 원서 접수 과정에서 학교에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지원한 고등학교에서 원서접수 전(입학설명회, 사전상담 등)에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응답한 경우였음
- 면접 위원 중에는 8.3%가 개인 식별 요소가 노출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방형 응답 확인 결과 이는 자기소개서에 실명을 기재한 경우였음

2.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선 계획

가.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계획

-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 미만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사교육 유발 요인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연중 진행된 학교 설명회에서 지속적으로 면접 및 자기소개서 관련하여 사교육의 불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보임
- 면접 위원의 응답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답변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학교 설명회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할 경우 자기소개서 및 면접의 사교육 유발 요인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임

나. 자기주도학습전형 시행에 대한 개선 계획

- 모든 응시생에게 입학전형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전 영향평가에 비해 불성실한 응답 및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이 나타남. 응시생들이 조금 더 성실하게 입학전형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형 과정에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